

사탄의 나라 앗수르의 심판을 미리 본 70인 제자 나훔 -복음으로 여는 나훔서- 나훔 1:1-3, 요한계시록 18:1-6

정운돈 목사님

* **나:1-3**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 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니 하나님이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 버려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와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라

* **계18:1-6**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이여,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 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 대로 갚벌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갚벌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영인토록 행복한 존재로 창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 상에서 고통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해결해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평생까지 복음을 전할 축복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강단을 통해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이 복음과 후대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질문과 기도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텐데 응답과 해답과 나와 내 가정과 교회에 주신 구체적인 미션을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이 너무 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 복음 때문에 멸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해방되었고 그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저를 아끼는 목사님이 계신데, 코미디언처럼 웃기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와 같이 사우나를 가셨다. 사우나 사장님에게 ‘여기 뜨겁죠? 사우나는 나갈 수 있는데 지옥가면 못 나가요’ 하더라. 그리고 호텔 사우나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지옥에 안 간다. 구원 받았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어야 한다. 전도도 왜 할까? 1차적으로는 지옥에 안 가야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다. 어چه 큰 누님과 전화를 했다. 나이 드신 노인을 만났는데 ‘죽어야지, 죽어야지’하시니까 누님이 ‘죽으면 지옥가요, 지옥에서는 더 고통 받아요’했다고 하더라. 죽으면 끝인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죽는데 죽으면 지옥 간다.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한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의 전도와 현장운동과 치유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온갖 타락과 재밌는 일들을 즐기지만 결국 불행하다. 우리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부모님이다. 가장 잔소리 많이 하시는 분도 부모님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꾸지람도 가장 많이 하신다.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다. 선생님과 목사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는 책이다. 니느웨는 요나 때 잠시 회개했지만 결국 멸망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복

음으로 결론내지 못하면 결국 지옥 간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으면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게 된다. 제가 자살예방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자살하면 지옥가냐고 물어본다. 저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지옥에 간다고 대답한다. 끝까지 버티시기를 바란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자살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주셨는데도 죽고 싶다고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심지어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하나님으로까지 강조하여 표현되고 있다. 과장법으로 과장되게 표현되고 있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재앙이 온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유 있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참된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틀린 것과 말할 것만 자꾸 선택하게 된다. 바벨론과 앗수르, 러시아를 봐라. 왜 지도자들이 계속 말할 것들을 할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시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멸망하고 최후에는 지옥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 받을 텐데 고집 피우면서 남 탓한다. 그러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언약을 떠나 더러운 쪽으로 가면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때문에 주일만이라도 용서를 구하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준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다. 저도 실수가 많다. 여러분과 우리 기문의 문제가 내 탓이다. 다른 탓이 아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땅대, 복음의 땅대가 되어서 흑암을 쫓아내는 시간되시길 바란다. 오늘 말씀드릴 나훔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앗수르 사람들의 수도,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선지서이다.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바란다. 다른 게 아니라 현장에 70명대를 만드시기를 바란다. 저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다 성공시킬 것이다. 참 언약가진 대통령도 나와야 한다.

오늘은 나훔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나훔서는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성경에 나오는 앗수르는 대표적인 사탄의 나라이고 그 수도 니느웨 성은 대표적인 사탄의 망대였다. 참복음을 깨달은 나훔과 같은 남은 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설 때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망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다. 그 위로의 말씀은 지금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망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이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놔둬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저를 괴롭히던 사람도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다. 우리는 사랑받았고 용서할 자격밖에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회개하고, 좋은 일만 하기를 원하신다.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들은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 내어 승리하여야 할 것이다.

1. 앗수르와 니느웨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나훔서에 나와 있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다.

(1) 첫 번째는 앗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설명이다. 앗수르와 니느웨가 어떤 나라일까? ① 앗수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최초의 제국이었다.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도 BC.221년 통일했다. 그런데 진나라보다 수백 년 앞서서 인류 최초의 제국 왕국을 만든 나라가 앗수르였다. 앗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했다. 앗수르의 썩기문자에 보면 앗수르의 잔혹성이 드러나 있다. 그 앗수르가 BC.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②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렸던 나라였다. ③ 앗수르는 북이스라엘에 많은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을 혼혈민족으로 만들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앗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④ 강제이주를 시켰던 그 대표적인 지역이 사마리아였다. 유대에서는 사마리아를 배척하고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았다. 이런 역사적인 피해를 준 원인이 앗수르였다. ⑤ 뿐만 아니라 앗수르는 많은 이방 우상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만 섬기던 북이스라엘 지역을 우상과 각종 종교의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⑥ 이 앗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다. ⑦ 역사적으로 이 니느웨 성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으로 알려져 있다. 성경 요나서에도 니느웨 성은 삼일을 걸어야 할 정도로 크다고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성 높이가 10층, 전차 3~4대가 지나갈 정도로 폭도 넓었다고 한다. ⑧ 나훔서

를 기록하기 약 백 년 전에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회개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언약이 전달이 안 된 니느웨 성의 후대들은 또 다시 악한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후대들에게 언약을 잘 전달해야 한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나와서 돈 잘 버는 법을 알려주더라. 그러면 돈은 잘 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의 딸도 자살했다.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국회의원이 되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자녀라도 자기 자녀를 선택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 바란다. 회개만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 ⑨ 결국 이 거대한 사탄의 땅대의 역할을 했던 니느웨 성은 BC.612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2) 니느웨 성의 발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다. 이전에는 이 니느웨 성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그런데 1845년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레이어드'에 의해 니느웨 성이 발견되었다. 그 발견된 고고학적인 유적들이 지금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가장 많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전시되어 있다. 가장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가장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나훔서의 예언처럼 강물에 의해 땅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3) 결국 니느웨 성은 나훔 선지자의 예언처럼 멸망하고 말았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찾아보겠다. ① 나훔서 1장 8절을 보겠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지금 과학이 가장 발전한 시대지만 타락이 가장 많이진 시대이기도 하다. 여러분만이 개인과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땅대다. ② 나훔서 2장 13절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③ 나훔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들은 바벨론 군대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향로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앗수르의 전차가 바벨론보다 못한 것 같다. 바벨론의 옷과 방패가 붉은 색이었다. 이 말씀은 바벨론 군대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나훔서 2장과 3장은 니느웨의 멸망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

2.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말씀들에 대하여 찾아보도록 하겠다.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이 멸망과 심판은 개인과 나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먹고 살지만 생각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에서는 쓰나미가 밀려왔다.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들은 멸망과 지옥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야 하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300명씩, 30다락방, 3교회회에 도전해서 70현장에 복음의 땅대를 세우는 전도운동과 구원운동에 도전해야 하겠다. 그 안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담겨 있다. 한번 도전해 보라.

(1)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마지막 때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을 보겠다.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소식들을 지금은 다 뉴스로 들지만 옛날은 어땠을까? 이제 와서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되고 있다. 지금이 말세시대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다.

(2) 사도 바울도 주님의 재림과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였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겠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줄 믿는다. 그러나 앗수르와 니느웨는 심판 날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심판 이후에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정말 전도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진짜 구원해야 한다.

(3) 요한계시록 18장 2절 중간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곳이 지금 서울이고 인천이고 강동과 하남이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의 큰 교회를 둘러보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가는 곳들은 다 은혜롭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멸망과 타락의 도시가 될 수 있고 은혜의 현상이 될 수 있다. 생명 없으면 할 것이 멸망과 타락 밖에 없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로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예배고 기도수첩이고 훈련이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씻지 못해서 몸이 계속 썩어간다.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은 인류의 역사마다 있었던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다. 앗수르도 멸망하였다. 바벨론도 멸망하였다.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였다. 애굽도, 헬라 그리스도, 로마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 어떤 세력과 제국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개인과 가정도 다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로 결론내는 수밖에 없다.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이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야 하겠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4)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최후의 심판이다. 사망과 음부, 죽음도 없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참된 성공자라는 사실을 믿기 바란다.

오늘은 나훔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① Covenant. 복음과 언약이다. 앗수르와 니느웨처럼 사탄의 나라, 세상이라는 땅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②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불신앙의 사람들은 결국 멸망한다는 사실과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알려 주는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징계, 중간 징계, 큰 징계, 지옥의 영원한 징계가 있다. 너무 큰 징계를 받으면 인생이 10년, 20년씩 날아간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 어렸을 때 정신차리고 일곱 램프들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들을 너무나도 빨리 놓치게 된다. 가장 결론나고 행복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기 바란다. 부모님과 세상 타하는 것은 다 핑계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했다. 어떤 분이 제게 초등학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벌써부터 금식하냐고 하더라. 저는 '저 분이 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깨달고 기도했으면 저런 문제를 당하지 않았을텐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어른들의 역할은 후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다.

③ Dream. 꿈이다. 만약 우리들과 후대들을 괴롭히는 앗수르와 니느웨같은 흑암세력에 대하여 24시간 결박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④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위기 앞에서 조금만 집중해도 나훔과 같이 응답과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 요나도 저 악한 나라가 왜 망하지 않는지 질문했다. 나훔도 질문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할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 예언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

⑤ Practice. 지속적인 도전과 실현이다. 나훔 선지자와 같이 아무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Nobody와 Nothing의 현장을 모두를 살리는 Everybody의 현장으로 만드는 남은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즉, 램프의 응답을 받는 빛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으로 니느웨와 같이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개인들과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참복음의 땅대를 세우려는 70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훔서를 통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앗수르와 니느웨와 같은 현장을 살리는 나훔과 같은 땅대를 내 안에 먼저 세우는 모든 성도들 특히, 후대 램프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